정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온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예수교회와 배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우님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배목사님의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목회간증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캐나다를 위해 2월, 3월에 세미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CARITAS 와 Savior Church를 방문하는 현장 교육에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의 그룹토의를 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조장이 되셔서). **사모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회에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되는 기회였습니다.** 세미나 준비와 섬김을 보여주신 배목사님의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치명 목사, 캐나다 토론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님과 그외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적 교회를 좀 더 깊게 또 넓게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Being 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성경적 근거, 예수님 말씀, 바울 사도 등도 좀더 언급하였으면 합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수 신학자들이 보는 선교적 교회의 강의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을 점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무기명

주예수교회 교역자분들, 리더분들, 담임 목사님의 환대와 섬세한 배려들로 첫날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았던점:

1. **이론에서부터 실제적인 Missional Church 사역에 대해 큰 그림을 보게 된 것**
2. 매 식사 메뉴 (특별히 첫날 환영만찬이 주예수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섬겨주시고 인사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3. 차량섬김 (호텔⬄교회, 교회⬄ 현장견학)
4. **교회 평신도 리더십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섬김**
5. 정확한 시간 엄수
6. **여러 선교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 고민했던 기회가 주어진 것**
7. 두 분의 부목사님들의 헌신적인 섬김
8. 새가족반 팀장 집사님으로부터 교회 내부 Tour 했던 것
9. Being VS. Doing의 차이점과 우선순위에 대해 배울 수 있던 것

개선점:

1. 각각의 선교팀의 팀장님들과의 직접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선교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Essential and practical tips & know-how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강의 또는 선택 세미나 시간)
2.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좀 더 길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선교적교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사모’로서의 역할들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무기명

우선 이 선교적 세미나를 계획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섬겨주신 주예수교회 교역자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관점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많이 듣고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적 관점 속에서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균형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무기명

선교적 교회 세미나 프로그램 배치를 이론-실제-사례발표 등을 주제별로 적절히 섞어 주셨으면 합니다. Ex) 이론-사례 (한주제)

그룹 토의 및 참여 프로그램이 보다 많아 졌으면 합니다. Activity 등.

패널 토의를 마지막 순서로 두지 않고, 패널 순서가 끝나는 대로 Q&A가 이루어졌으면 보다 생생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다른 패널들의 발표에도 참고가 되어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 있을까 합니다.

In-class에서의 교육의 한계성을 out of class에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식당과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과 식사하는 테이블에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주관하며 섬기시는 담당자 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기회를 넓혀 갔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패널 섭에외에 있어서도, Academic한 부분에서의 교수진 한분으로 족하고 주예수교회 외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나 단체에서 초청 강사로 세워 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성도가 자발적 참여로 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를 갖도록 했으면, 예를 들어 호텔이 아닌 성도의 가정, 식당이 아닌 될수록 교회식당에서 진행하였으면 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니 제 개인적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PGM Director 김종현

주예수(사랑)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예수교회=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님들이 모두 실천하고 행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더 강조하여 글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저도 교회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돕는 위치에 있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렿게 해야 한다는 의견, 그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등등의 의견들로, 결국에는 타교회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말도 없고 탈도 없다는 결론을 얻고 그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갈등과 조금의 불평도 있었음이 곧 반성과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나’를 향한 어떤 계획하심이 계시는 걸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세미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50일간의 세미나를 위한 작정기도의 열매와 성도님들의 봉사와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수확되어 결국에는 복음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명령을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 드리리라 믿습니다.** 공항 **픽업에서부터 매 일정마다 라이드 해주신 장로님들, 다과준비와 방송 시스템, 일정과 세미나를 관리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지금은 ‘주예수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의 오류로 인해 뉴욕굥항에서 6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홀로 공항 픽업을 ‘유엔 총장’급으로 받은 기억, 3회의 시간 지연 변경에도 본인은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행복한 함박웃음으로 우중의 라이드와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전해주신 박장로님, 이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장로님의 라이드를 권해주신 담임목사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부터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막연하게 배웠던 ‘선교적 교회’를 이곳 ‘주예수교회’에서 ‘아, 이건 바로 선교적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하는 한 분 한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숙박과 식사, 매회마다 베풀어 주신 다과 사랑, 그리고 필독독서임에도 구입하지 못했던 귀한 도서들을 선물해 주신 섬세하신 배려하심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의 모습과 ‘선교적 교회’의 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갖가지 꽃들이 움트고 피고 있는 주예수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겨울 같았던 저의 지난 몇개월이 이 기간의 세미나와 받은 사랑과 배려, 도전, 열정을 통해서 저에게도 새로운 꽃망울이 피어오르려고 움트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감사를 드리며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희 전도사

2박3일 동안 귀한 시간 주시고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앞두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고 그 뜻을 발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때로 공감이 되면서도 현실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점에서도 기대했던것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순서상으로도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지가 주어진 기도제목입니다. 바라는 점은 2월말이나 3월중에 세미나가 진행되면 좋겠고 주예수교회의 평신도나 2세의 의견과 경험도 듣고 싶고 주예수교회외에 타교회 중에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교회의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 실제 목회자가 오셔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시면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시는 배현찬 목사님의 간증을 더 듣고 싶습니다.

무기명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진행과 철저한 준비속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감동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는 신광섭 교수님의 1, 2강은 바인더에 있는 내용이 너무 축소되어서 PPT로 나오는 내용보다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처 필기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려 아쉬웠습니다. 바인더에 있는 Copy를 PPT와 같이 만들어 배포하면 더 좋겠습니다. 3, 4강은 구체적 사례 발표가 있어서 이해하기 훨씬 쉬웠고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5, 6강은 구체적 실천 교회로서 성공적 사회선교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아무런 실패 사례는 없었는지, 하는 사역속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같이 다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7, 8강은 평신도 리더의 선교 간증과 상황에 접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강의와 모든 절차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PGM 김장형 장로

1. 봄꽃 소식을 주는 세미나였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이번 세미나 소식은 마치 겨울을 지나고 봄꽃 소식을 듣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리더십을 주제로 리버티신학교에서 D.Min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강의는 제 논문의 이론적인 핵심사항들을 배워가는 기회였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목회 리더십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논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혼자서 책으로만 알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봄꽃 소식과 같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2. 저의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유학 5년차로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을 기다리는 교차점에 있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이번 세미나는 제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배현찬 목사님의 깊은 신학적 확신과 뜨거운 목회 열정을 통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느리지만 선교적 교회를 향한 비전의 씨를 심어 보겠습니다. 저의 아내 역시 이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음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 저희 가족을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 봄꽃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두 장로님의 강의를 통해 이민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태은 장로님의 간증에서 이 세미나를 위해 50일동안 기도로 준비하셨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향기로운 봄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빡빡한 일정 동안 세미나를 섬겨주신 주예수교회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 헤어져 사역하시는 곳에서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는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근목사, 린치버그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새롭게 충전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참석한 저희들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명으로 저희들에게 선교적 목회를 나누어 주신 배목사님과 주예수교회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잘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내년에는 장로님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역에 늘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동역의 관계를 맺고 서로 왕래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된 사역과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롬

박태겸 목사, 캐나다 토론토